

뉴스

서귀포시

서귀포시, 불법주정차 근절 릴레이 캠페인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식 개선 일환
동홍동 시작으로 전 읍면동 동참

이태윤 기자 ty9456@ihalla.com

입력 : 2019. 04.22. 17:09:06

서귀포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식을 개선하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읍면동 불법주정차 근절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방해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활동과 더불어 시민 스스로 수준 높은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식을 높이고자 지역주민들과 함께 진행된다.

캠페인은 22일 동홍동을 시작으로 실시됐으며, 앞으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와 읍·면·동 사무소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매월 2회 진행될 계획이다.

캠페인에서는 가두 캠페인,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 전단지 및 홍보용품 배부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시승,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단속활동을 체험 기회 등이 제공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주정차 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억 파산에서 36억 졸부로.. 중년男 인생역전 방법이??

1년만에 30억을 벌어들여 이슈가 되고 있는 김성근 (63세 남성)씨가 화제인데, 불과 2년전까지만 해도 주위 사람들에게 빚독촉에 시달리는 '노후파산자'였다. 사실이 공개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태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